

2021. 5. 10
창작노트 DAY-1

지구온난화

북극곰이 요즘 힘들대며?

- 응. 지구온난화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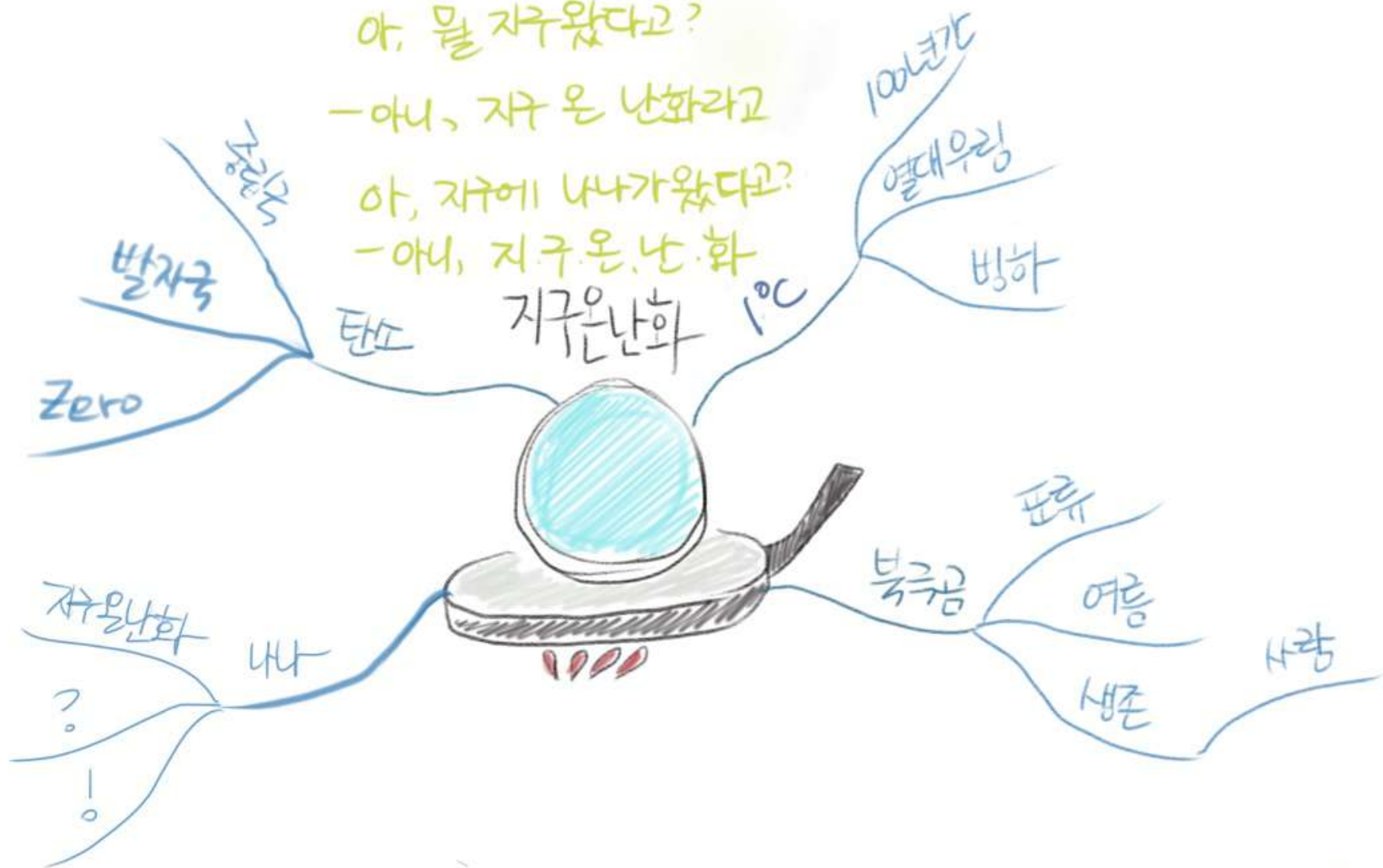
아. 뭘 지구왔다고?

- 아니, 지구온난화라고

아, 지구에 나타나왔다고?

- 아니, 지구온난화

- 아아, 열대지마
그러다 지구온도도 더 올라



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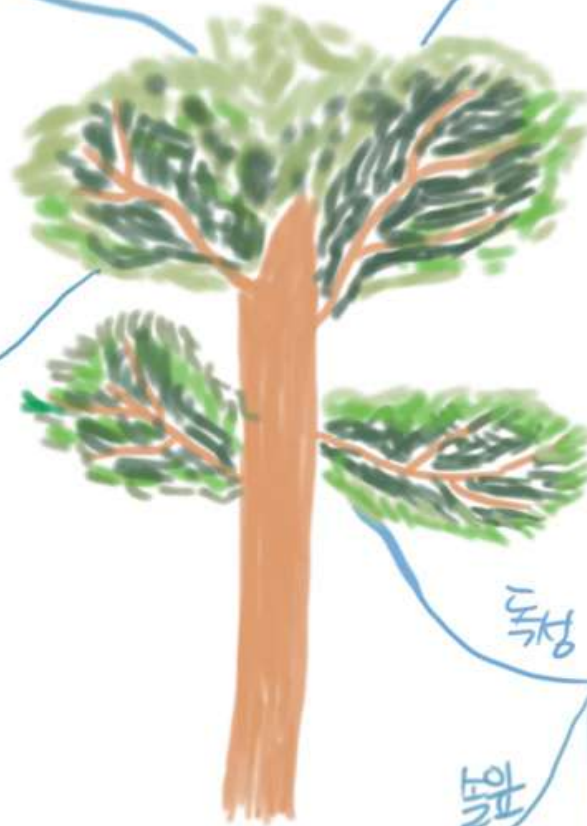
초대장 - 김보람

Day2, 소나무

비꽃과 바톤 터치한
소나무가

저 멀리 산에서
연노랑빛 꽃저울을
자동차 위에
창문 틈에
고인 벼물에
살짝 뿌려놓고 갔다

이제 내 꽃보러와세요.



초대장
당번
분필
수영
자동차
페인트
집
대형

송하가루

부린

가깝
장작
송하가루
장승
떡
과자
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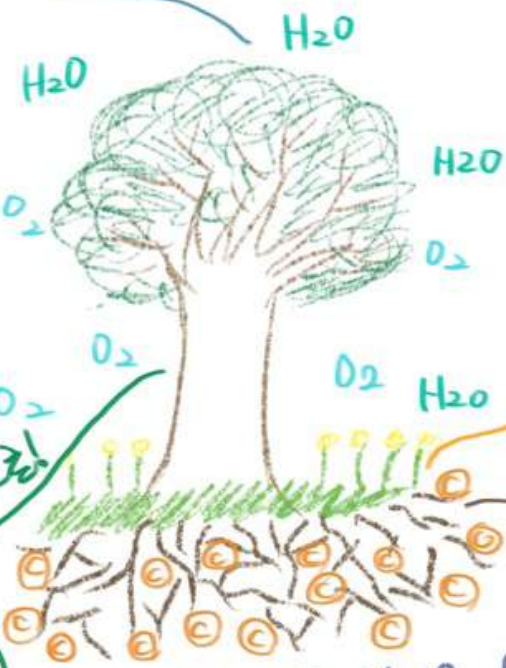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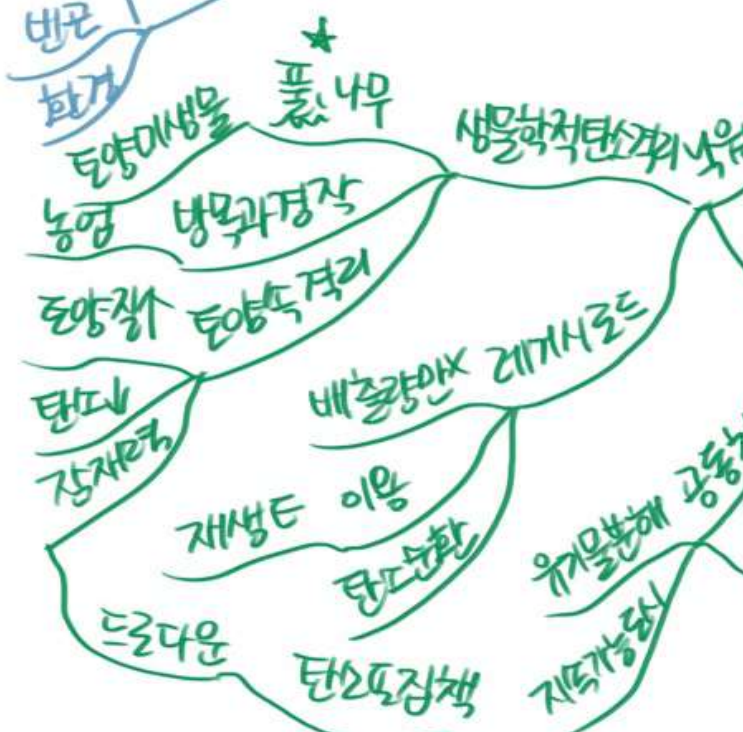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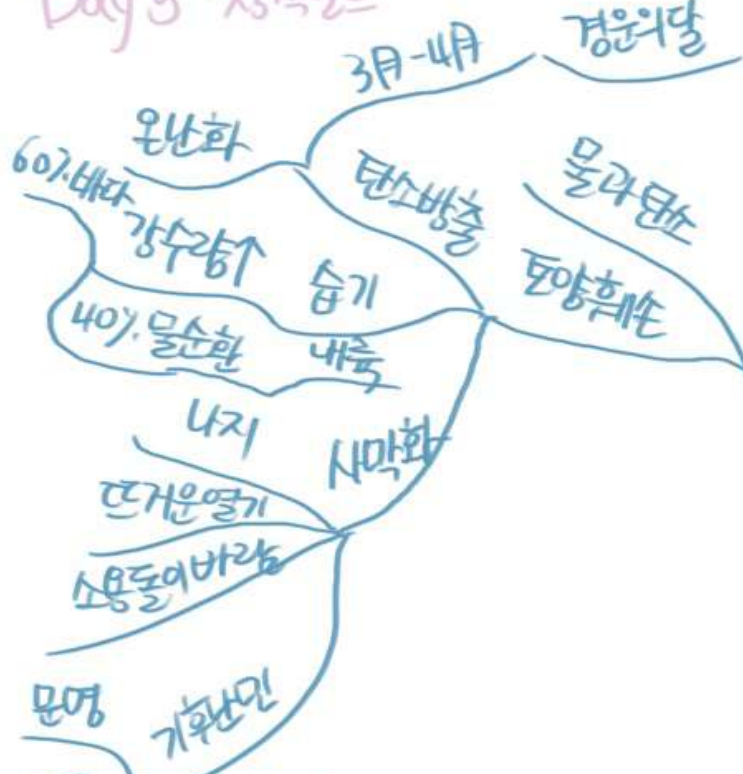
이로인

향빛
분필
배우
성상X
아리나무

Day 5 3차 2트

< 탄소의 꿈 >

난 잠이 좋은데 말이죠.
 땅에서 대어났는데 흙한지가 되어 사라졌어요.
 난 잠이 좋은데 말이죠.
 뿌리 같게 자고 있는데 잠들
 뿌리가 없어요.



땅을 돌아가고 싶어요. 바다같이
 장들고 싶어요.
 내 꿈은 기후악당이 아니라
 장꾸러기랍니다!



2021. 05. 24 BR



완료

2021년 6월 25일 오후 12:22

창작노트를 마치며 (시인, 김보람)

창작은 수집과 생각의 연결, 그 틈사이에
피어나는 들장미 같은 것이 아닐까.

뿌리에서 줄기로 그리고 잎 사이로 피어나는 장미들이
오유월 담벼락같은 창작노트에 가득 얼굴을 내밀었다.
주로 찰나의 감각, 영감에 의존하여 시를 썼던 것과 달리,
창작 노트에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을 연결하는 과정을 기록해보니
창작자의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8개의 창작노트를 썼다. 맵핑을 이용하여, 연결에 연결을 더하고
끝에 짧은 문장을 끼적였다.

지구적인 관점을 얻기 위해, 내 주변의 자연을 탐색하고 질문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것,
배경이 아닌 주체로서 바라보는 힘이 생겨났다.

내 생각과 내 시는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제는 당신에게 물어볼 차례이다.

우리 같이 지구를 구해보지 않겠냐고.

내 맵핑의 끝은 항상 열려있다.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 |



Aa

